

# 동두천중학교 윤재룡 교사



동두천중학교 윤재룡 선생님을 만나기로 한 금요일 저녁 서울 지하철 4호선 창동역 주변은 무척 붐비고 있었다. 건물마다 뽀뽀하게 들어찬 이런 저런 가게들만으로도 모자라서 가지각색 노점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미리 사진을 찾아 확인하고는 왔지만, 이 복잡한 곳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만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던 참이었다. 그 때, 윤 선생님이 먼저 알아보시고는 인사를 건네 오셨다. 가벼운 캐주얼 복장에 가방을 가로질러 매고 있었고, 웃음 가득한 얼굴이었다. 역 주변을 벗어나 한참을 걸어서 '횡성한우'를 강조한 큰 간판이 인상적인 한 고깃집에 들어갔다. 이미 시끌시끌한 고깃집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편한 인터뷰가 될 것 같았다. 이렇게 천체사진가 윤재룡 선생님과 나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사진 찍는 취미가 있었어요. 주로 카메라 들고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친구들 결혼식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지금도 카메라가 일곱 대나 있어요. 망원경은 세 대... 오디오 취미도 좀 있습니다. 적금 타서 오디오 구입 하곤 했지요. 오디오는 가격이 엄청나서 욕심 안 부리고 무난한 맥킨토시 정도로 만족하고 있어요. 턴테이블은 하나 만들어 볼까도 해요. 모터로 제어할 수 있으니까.”

사진 찍고 이것저것 직접 만들어보고 하는 취미가 일상이었다. 윤 선생님은 우연한 기회에 천체사진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한번은 제가 있는 학교로 남자 과학 선생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학교에 비치할 망원경이며 카메라를 사러 같이 남대

문 시장을 뒤지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나와서 영겁결에 그 분을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사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연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 때 망원경을 통해서 처음 목성을 봤는데, 목성의 띠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목성의 위성도 보였는데, 거기에 반해버렸지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윤 선생님은 내친 김에 그 해 여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주최한 교사 천문학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신청하려는데 이미 마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통사정을 했지요. 정성을 봐서인지 참가하도록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 때 연구원의 문흥규 박사님을 만났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강의도 참 좋았습니다. 천문학의 여러 분야를 요약해서 한꺼번에 강의를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연수 끝나고 부탁해서 아마추어천문과 천체사진 공부를 도와줄 분들 전화번호 두 개를 얻었습니다.”

처음 찾아갔던 곳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한다. 다행히 두 번째로 연락하고 찾아가던 사람은 이태형 씨였고 친절하게 윤 선생님을 맞아주었다.

“1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동두천에서 전철타고 달려가서 배웠습니다. 1991년이었지요. 나이 들어서 늦게 시작했지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도가 빨랐어요. 인터넷도 뒤지고 책도 사서 보고, 참 열심히 공부했었지요.”

지금은 대전시민천문대 대장으로 있는 김기환 대장과는 그 때



동고동락했던 사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윤 선생님의 천체사진가로서의 출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고 박승철 씨와의 만남이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안시관측보다는 사진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 때부터 사진 찍는 취미도 있었고요. 이태형 씨는 사진보다는 눈으로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박승철 씨는 천체사진가 선배로서 제가 무척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저의 우상이었죠. 적극적으로 천체사진 찍을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천체사진 찍는 법도 많이 배웠어요.”

윤 선생님이 지금도 누구에게나 적극 자랑하는 아스트로피직스 6인치 굴절망원경도 사실은 고 박승철 씨의 적극적인 추천 때문에 구입하게 된 것이었다.

“천체사진 찍는 아마추어천문가라면 누구나 탐내는 망원경이 아스트로피직스 제품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저보다 제가 갖고 있는 아스트로피직스 6인치 굴절망원경을 더 알아줍니다. 사고 싶어도 주문해서 손에 들어오기까지 무척 힘든 명기예요. 박승철 씨가 ‘이것이 최강이다’ 하고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필름 사이즈에 맞는 넓은 상을 제공하고, 필름면 구석구석까지 초점이 맞아 깨끗한 상을 얻을 수 있는 망원경은 아스트로피직스 밖에 없다는 거예요. 멋모르고 덜컥 경통에 6,000달러, 가대에 6,000달러를 투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1996년 12월초에 마침 미국에 살고 있던 사촌형을 통해서 망원경을 주문했어요. 그 해 크리스마스 무렵에 사촌형이 귀국하는 길에 가대를 들고 들어왔죠. 경통 자체는 1년 6개월 후에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빈틈없이 정밀하게 만들어져서 아이피스를 돌릴 때 나사 틈새로 바람 소리가 새어나온다며 망원경 자랑에 여념이 없다.

“연천에서 처음 천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태형 씨가 소행성을 발견할 때 관측하던 그 곳이지요. 그 때는 모두 필름을 사용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흑백보다는 컬러 필름을 주로 사용했어요. 좋은 망원경을 사용하니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에는 초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칼날초점법이라는 방법을 응용·개발해서 0.1mm까지 초점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필름을 편평하게 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소를 카메라 안에 넣어서 필름을 건조하게 유지했습니다. 카메라 뒤판에 구멍을 뚫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장치를 고안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편평한 필름에 또렷한 상이 맺히도록 하려는 노력이었지요. 저만의 노하우였기도 하고요. 천체사진촬영은 하나의 종합예술입니다. 사진 찍으러 돌아다녀야 하니 제가 갖고 있던 사진 취미와 제 적성과 딱 맞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비와 연구, 그리고 노력 끝에 찍어낸 윤 선생님의 사진은 독보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천체사진전에 일곱 번 출품을 했습니다. 그 중 여섯 번 입선했고요. 대상 한 번, 금상 두 번, 은상, 동상, 장려상 각각 한 번씩 수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천체사진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하더군요. 우스갯소리로 상금 랭킹 1위라고도 합니다. 토성식부터 구상성단 M13까지 주로 유명한 천체들을 촬영했습니다. 은하는 구경이 작아서 좀 무리였지요.”

천체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천체사진가협회를 결성하기도 하고 천체사진전을 열기도 했던 윤재룡 선생님도 디지털의 파도는 비껴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디지털화 되면서, 특히 냉각 CCD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아날로그 시절의 노하우가 무력화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딱 변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마지막 아날로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천체사진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두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5000×7000픽셀짜리 CCD가 한 1,000만 원쯤으로 싸지면 구입하려고 버르고 있습니다. 그 때는 망원경도 좀 손을 봐야지요. 모터를 직접 달아서 마운트 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공부도 다시 시작해야지요. 냉각 CCD 쓰는 날이 오면 넓은 시야에서 은하단에 속한 은하들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천체사진 촬영에서 잠시 벗어나 하늘바라기 동아리 ‘별만세’에서 강연을 하거나 강원도 화천에 자리 잡은 별만세 관측소로 관측을 가고,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관측회’ 같은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화천 하늘이 꽤 좋은 편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은 관측회를 갑니다. ‘별만세’가 아마 가장 활발한 아마추어천문 동아리 중 하나일 거예요. 천체사진전 입상도 제일 많이 합니다. 요즘 별만세 회원이신 고창균, 신영범 선생님은 집에서 원격으로 망원경을 조정해서 관측을 하고 천체사진을 찍습니다. 이것이 추세가 될 거라고 봐요. 시간도 절약되고 사고 위험도 없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기름 값도 절약되고요. 저도 다시 천체사진을 찍게 되면 이런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인터뷰 내내 형님 같은 윤 선생님의 구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디지털 시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쩌면 윤 선생님이야말로 ‘디지로그’ 시대로 막 들어서고 있는 천체사진계의 마지막 ‘아나지털’ 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디지털로 무장한 윤 선생님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해 본다.